

古代 韓中詩僧의 시가 비교연구

— 高麗와 唐代 詩僧의 시가를 중심으로 —

任元彬

차 례

- I. 序論
- II. 詩僧의 창작배경의 양상
- III. 시가내용에 대한 고찰
 - 1) 佛敎의 色彩
 - 2) 개인의 감정표현
 - 3) 사회에 대한 인식
- IV. 結論

I. 序論

佛敎는 漢代에 전래된 이후 중국의 문화와 접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魏晉南北朝의 東晉에 이르러 흥성했던 玄學은 儒佛道의 三敎를 융합하면서 발전했는데, 이때에 소위 승려와 문인사대부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왕래는 승려로 하여금 시가를 창작하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당시의 승려들은 시가를 통하여 자신의 불교적인 체득을 표현하였다. 唐代에 이르러 儒佛道 三敎에 대한 중시로 인한 불교의 발전과 시가 자체의 발전은 승려로 하여금 더욱 왕성하게 시가를 창작하게 하였으며, 자연히 많은 詩僧들이 출현하였다.¹⁾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많은 고승이 배출되어 불교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불교 자체의 흥성은 역시 불교국가인 고려시기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려는 불교국가라고 칭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중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唐代와 같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은 아니었고, 승려라는 신분은 특수한 것이며 국가의 인정을 받는 높은 지위였다. 그러므로 “高麗는 불교국이었던 만큼 僧侶가 많았고, 그들은 모두 지식계급이었으므로 文僧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高僧으로서 詩 한 수 못 짓는 이 없었고, 당대의 일류 文人 顧學들과 교류하지 않은 이도 드물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詩僧이 배출되어 麗朝 詩壇을 풍요롭게 하였다.”²⁾라는 언급과 같이 승려는 대부분 당시의 지식인 계층이었으며, 이들 자체가 詩僧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렇듯 양국에는 불교와 관련되어 형성된 詩僧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방대한 시가작품이 존재하고 있다.⁴⁾ 그러나 불교에 뿌리를 둔 동일한 詩僧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처지나 주위 환경 등에 따라 시가창작배경이나 창작 자체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과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차이점과 唐代와 高麗라는 시간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⁵⁾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唐代와 高麗시기의 詩僧들의 시가를 비교하며 고찰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唐代와 高麗

1) 魏晉南北朝시거나 唐代에 詩僧이라고 할만한 승려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시가가 능한 승려는 사실상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魏晉南北朝시기에 명성을 떨친 저명한 詩僧에는 支遁과 慧遠이 있으며, 唐代에는 王梵志·寒山·拾得·皎然·貫休·齊己 등이 대표적이다.

2) 印權煥著, 『高麗時代 佛教詩의 研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3, 55쪽.

3) 신라시기의 저명한 詩僧에는 元曉大師 慧超大師가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大覺國師 義天, 眞覺國師 慧謙, 普覺國師 一然, 圓鑑國師 沖止, 太古國師 普愚 등이 있다.

4) 중국의 唐代의 시가를 수록한 『全唐詩』에 詩僧은 115명이며, 이들의 시가는 2800여수가 전하고 있다. 조선 초에 엮은 『東文選』에는 23명의 詩僧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시가는 82수가 전하고 있다. 그러나 『東文選』이외에 기타 문헌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詩僧은 약 100여명에 이를 것이며, 그 시가의 수량도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5) 시간적인 차이점에서 唐代는 신라와 동일한 시기이지만 고려와는 이미 상대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唐代의 詩僧의 시가와 고려까지의 詩僧의 시가를 고찰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불교의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唐代의 초기 詩僧의 면모는 고려 초기의 詩僧과 유사하며, 唐代의 中·末期의 詩僧의 면모는 고려시대 중기와 후기의 詩僧과 유사하다. 이는 불교가 신라에 전래된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唐代의 中·末期처럼 저변 확대되고 중시 받았기 때문이다.

시기의 詩僧의 시가창작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창작배경상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어서 시가창작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II. 詩僧의 창작배경의 양상

詩僧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시를 창작하는 승려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일부 학자들은 각각의 견해를 피력하며 詩僧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학자 孫昌武는 “그들은 일반적인 불교 저술가가 아니며, 또한 일반적으로 시를 잘 짓는 승려도 아니며, 唐宋시기 禪宗의 영향 하에 대량으로 출현한 전문적인 승려의 형태를 가진 시인이다. 禪宗이 크게 흥성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환경의 산물이다.”⁶⁾라고 唐宋이라는 시대와 禪宗이라는 종파를 강조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국학자는 시대나 禪宗과 관련시키지 않고 魏晉南北朝 東晉 시기의 支遁이나 惠遠 등도 詩僧이라고 말하고 있어 일반적인 詩僧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⁷⁾ 한국의 경우에는 『東文選』에 승려의 시가를 수록하고 있지만 詩僧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또한 洪萬宗 역시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단순히 “고려시대에는 詩僧이 많았다.”⁸⁾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간의 詩僧에 대한 개념이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본고는 비교를 통한 고찰의 측면이므로 넓은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즉, 詩僧의 개념을 시가를 창작하는 승려라는 보편적인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아래에 唐代와 高麗의 詩僧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禪宗이 양국의 불교종파 중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측면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고 중국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禪宗이라는 종파가 소위 중국화 된 불교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漢代에 불교가 전래되고, 魏晉南北朝시기 達摩가 인도로부터 선

6) 孫昌武著, 『禪思與詩情』, 中華書局, 1997, 333쪽. “他們不是一般的佛教著作家, 也不是普通的能詩的僧人, 而專指唐宋時期在禪宗思想影響下出現的一批僧形的詩人.....是禪宗大興所造成的獨特社會環境的產物。”

7) 覃召文著, 『禪月詩魂·中國詩僧縱橫談』, 三聯書店, 1995, 36쪽.

8) 洪萬宗著, 『小華詩評』, 『洪萬宗全集』下, 太學社, 1980, 168쪽. “麗朝 詩僧多”

종을 전해준 이후 선종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중 제6대 조사인 慧能에 이르러 불교 종파 중에서 가장 흥성하였다. 즉, 달마가 선종을 전해 준 후 唐代 중기의 慧能和 唐代 후기 그 제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대하여 “대략 350년 동안 達摩의 禪은 끊임없이 발전했으며, 점차 적응하면서 중국적인 禪의 시대를 만들었다.”⁹⁾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唐代 중기와 후기에 이르러 禪宗이 중국화 된 불교로서 자리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詩僧들의 활동 역시 이러한 禪宗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唐代 초기의 詩僧들에는 王梵志·寒山·拾得 등이 유명하지만 이들과 선종과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또한 宋代 姚勉이 “梁과 魏에서 唐初까지 승려들이 禪을 시작했지만 시가 지어지지 않는 않았다. 唐代 말기에 禪宗이 대성하자 시 역시 크게 발전했다.”¹⁰⁾라고 말한 언급을 보면, 唐代 중기와 후기에 선종의 승려에 속하는 詩僧들이 대거 등장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禪宗의 발전 과정이 있었다.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신라는 가장 늦게 법흥왕 15년(528)에 불교를 수용하였다. 선종의 전래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개는 신라 선덕왕 5년(784)에 道義禪師가 唐에 들어가 馬祖의 제자에게 禪思想을 배운 후에 돌아와 전했으며, 그 후에 많은 승려들이 唐에 가서 六祖 慧能의 禪을 배우고 온 후라고 말하고 있다.¹¹⁾ 선종이 전래된 후에 신라 말기에 이르러 각 파를 형성하였으며, 소위 九山禪門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선종이 흥성한 것은 아니며, 특히 당시에 이미 전래되어 지배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던 涅槃·戒律·華嚴·法相 등의 종파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大覺國師 義天은 禪宗이 신라를 망하게 한 종파라고 생각하고 선종을 天台宗에 수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선종은 고려시대 중기 普照國師인 知訥에 이르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지눌은 소위 慧能의 曹溪의 宗風을 발전시켰으며, 선종을 한국불교의 主脈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 불교의 開創을 열었다

9) 印順著, 『中國禪宗史』, 江西人民出版社, 1993, 1쪽. “約有三百五十年, 正是達摩禪的不斷發展, 逐漸適應而成爲中國禪的時代.”

10) (宋)姚勉撰, 『雪坡舍人集』, “梁魏至唐初, 僧始禪, 猶未詩也. 唐晚禪大盛, 詩亦大盛”(周裕鍇著, 『中國禪宗與詩歌』, 上海人民出版社, 1992, 38쪽. 재인용)

11) 韓基斗著,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 184-185쪽.

고 할 수 있다.¹²⁾ 지눌의 뒤를 이은 인물인 慧謙과 普愚는 선종을 더욱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만들었다. 고려시대의 詩僧 역시 중국 唐代의 詩僧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신라와 고려 초기의 詩僧이라고 할 수 있는 圓光·元曉·慧超·義天 등이 禪宗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중기와 후기의 知訥·慧謙·一然·普愚 등은 모두 禪宗 계통의 승려에 속하는 詩僧인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唐代에 점차 禪宗이 중국화 된 불교로 자리잡아 중심이 되었으며, 詩僧 역시 주로 禪宗의 승려로써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묘하게도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고려시기에 선종이 主脈이 되는 과정과 유사하며, 또한 고려시기의 詩僧 역시 점차 禪宗의 승려로 발전했던 측면도 아주 흡사하다.

둘째는 詩僧들의 활동영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 魏晉南北朝라는 혼란한 시기에 직면하여, 많은 일반 사대부나 문인들은 혼란의 중심인 중원을 벗어나 강남지역으로 피신하여 거주하였다. 실제로 남북조에서 北朝보다는 南朝가 오히려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자연히 문인들이 오히려 남방에 많이 거주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詩僧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남방에서 주로 거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慧遠은 廬山에서 주로 활동했고, 支遁은 天台山일대에서 활동했다. 또한 唐 초기의 寒山이나 拾得 역시 支遁과 마찬가지로 天台山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이곳은 모두 長江의 이남지역이다.

唐代 中期와 後期에 활동하던 詩僧도 대부분의 남방에서 활동했는데, 주된 이유는 남북조의 상황과 흡사하다. 비록 唐代가 안정된 국가이지만 사실상 安史之亂 이후 唐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소위 당쟁과 환관의 전횡 그리고 지방관의 발호는 唐 자체를 지속적인 혼란으로 몰고 갔으며 결국 멸망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피하여 문인사대부들이 자연스럽게 남방으로 갔으며, 시승들 역시 이곳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劉禹錫 역시 “세간에서 말하는 詩僧은 대부분 江南에서 나왔다.”¹³⁾라고 詩僧들이 남방에서 활동하였음을 지적하면서 皎然과 靈澈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로 皎然과 靈澈은 주로 浙江지역에서 활동했다. 또한 唐 말기에 대표적인 詩僧인 貫休나 齊己 각각 益州나 江陵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모두 역시 長江이남이

12) 앞의 책, 『韓國佛教思想研究』, 88쪽.

13) 劉禹錫著, 『澈上人文集紀』, 『劉賓客文集』卷十九, “世之言詩僧, 多出江左.”

거나 그 일대에 해당한다. 남방에서 詩僧의 활동이 두르려졌던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외에 몇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魏晉南北朝시대에 성행했던 玄言詩나 山水詩의 창작과 맥락을 같이 하는 隱逸기풍이 남방에 만연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詩僧의 시가창작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가 현언과 산수의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구도의 길을 걸었던 詩僧들에게 신비함과 산수는 이들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支遁이나 慧遠은 바로 詩僧이면서 玄言詩나 山水詩의 鼻祖로까지 인정받고 있다.¹⁴⁾ 이러한 기풍은 唐代 詩僧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많은 은일 기풍이 담긴 시가를 창작하였다. 두 번째는 禪宗과 관련된 부분이다. 비록 魏晉南北朝 및 唐 초기의 詩僧들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唐代 중기와 후기의 詩僧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즉, 禪宗의 六朝 慧能은 禪宗을 더욱 발전시켜 선종을 中國化된 불교로 정립하였는데, 그의 禪宗은 바로 남종 禪인 것이다. 결국 선종의 고향이 바로 남방이기에 詩僧들은 더욱 자연스럽게 남방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남방에 거주하면서 이곳에 피신하여 온 많은 문인사대부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시가창작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가창작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 시기의 詩僧 貫休와 齊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고려시대에 활동한 詩僧들은 唐代의 詩僧처럼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활동의 영역에는 唐代의 詩僧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불교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되었기에 詩僧들은 기본적으로 唐이나 宋 및 元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의 大覺國師 義天은 송에, 圓監國師 冲止는 원에 유학한 경험이 있다. 유학 자체가 활동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라고는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의 시승들이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대개는 유학의 경험과 더불어 國師로써 수도에서의 활동경험이 있었으며, 후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지의 절에서 일정 기간 머물거나 혹은 장기간 머물렀다. 예를 들면, 大覺國師 義天은 靈通寺에서 머물다 수도에서 생활하였으며, 후에는 興王寺에 머물렀다. 眞覺國師 慧謙 역시 수도에서 머물다가 斷俗寺로 간 후에 다시 月燈寺에 가서 머물다 입적했다. 圓鑑國師 冲止 역시 甘露寺 및 定慧寺 등에서 머물렀었다.

14) 앞의 책, 『禪月詩魂』, 36쪽. “前者(支遁)顯示了玄言詩的風范, 後者(慧遠)開啓了山水詩的先河.”

중국의 경우 남방에서 詩僧들의 활동이 많았다는 사실은 詩僧들의 활동 범위가 비교적 한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한계는 이들의 유랑생활로 보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남방에서 머물면서 일반 문인과의 왕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을 것이며, 남방의 문학적 기풍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하여 신라와 고려의 詩僧들의 활동영역은 전체적으로는 폭이 넓지만 유학이나 수도에서의 활동은 자유로운 창작에는 소극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각각 특정 지역에서만 수도생활을 한 것도 역시 唐代에 詩僧들이 일반 문인들과 쉽게 왕래할 수 있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詩僧들의 사회적 지위인 신분상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에 魏晉南北朝는 불교의 전파시기에서 발전시기로 향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혼란시기였으므로 승려들 역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詩僧이라고 말할 수 있는 支遁이나 慧遠은 불교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을 뿐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았다. 또한 南朝의 惠休와 智藏 등이 비록 황제의 비호를 받으며 영향력이 있었지만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불교의 성행시기인 唐代에 활동했던 詩僧들의 지위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못하여, 고통스런 생활을 보내다 불교에 귀의하거나 혹은 농사짓는 신분에서 출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唐 초기의 저명한 詩僧인 王梵志에 대한 “부유한 가정의 따뜻함을 향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궁벽한 생활의 辛酸을 맛보았다.”¹⁵⁾라는 언급을 보면, 그가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만년에는 고통스런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 시기의 詩僧인 寒山은 더욱 비천한 신분으로 원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재능이 있어 과거를 보았으나 여러 차례 낙방하면서 실의에 빠져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¹⁶⁾ 唐 중기의 대표적인 詩僧인 皎然的 경우는 唐代의 다른 詩僧보다는 신분상 높았지만 역시 魏晉南北朝의 詩僧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며 높은 관직에 있지도 않았다. 唐 말기의 詩僧인 貫休나 齊己 역시 신분이 낮았으며, 일생을 거의 유랑하며 살았다. 특히 齊己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절에서 소를 치는

15) 喬象鐘, 陳鐵民主編, 『唐代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5, 166쪽. “既享受過富裕家庭的溫暖, 也嘗到了窮苦生活的辛酸.”

16) 呂慧鵠等編, 『中國歷代著名文學家評傳(續編一)』, 山東教育出版社, 1997, 603-604쪽.

아이였다가 귀의하였다.

중국의 詩僧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과는 달리 신라와 고려의 詩僧들의 신분은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면, 신라의 원효대사는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동침하여 설총을 낳은 스님으로 불교학을 정리한 고승으로 평가받으며, 후에 고려 숙종은 그를 國師로 시호 하였다. 또한 더욱 완벽한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의 시승들의 신분은 훨씬 더 높았다. 義天은 바로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 이었으며, 불교계에 있어서도 國師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眞覺慧謙은 고려 신종 때 진사에 급제한 후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승려가 되었으며, 역시 후에 國師가 되었다. 沖止의 집안은 비교적 높은 관직에 있던 사대부집안이며, 자신도 이미 19세 과거에 장원한 경력이 있는 승려이다. 후에 귀의하여 불교에 몸담았으며, 역시 國師의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신라나 고려의 시승들의 신분이 높았던 이유는 국가적인 정책과 관련이 있다. 우선, 신라의 경우 법흥왕(528년)에 불교를 공인하여 공식적으로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많은 승려들을 유학승으로 선발하여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보내 불교문화를 배워오게 하였다. 소위 유학승의 선발이라는 것은 바로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중국의 경우 민간적인 차원에서 불교가 전파되고 발전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고려의 태조는 고려의 건국 자체를 불교의 힘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스스로도 독실한 불교신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 자체를 중시하여 저명한 승려에게 國師라는 시호를 주었으며, 대부분의 詩僧은 國師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신분으로써 시가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는 분명 시가창작에 있어서도 차별점이 있을 것이다.

唐代와 고려시대의 詩僧들이 가지고 있는 禪宗이라는 공통점과 활동영역에서의 차이점, 그리고 詩僧들의 신분상의 다른 점은 이들의 시가창작에 당연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 창작에 있어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리라 생각한다.¹⁸⁾

III. 시가내용에 대한 고찰

17) 고려시대에 시가에 능하여 詩僧이라고 할 만한 승려들은 대부분 大覺國師 義天, 眞覺國師 慧謙, 普覺國師 一然, 圓鑑國師 沖止, 太古國師 普愚 등과 같이 國師의 시호를 받았다.

唐代 詩僧의 시가나 고려 詩僧의 시가는 모두 기본적으로는 불교의 교리가 주된 내용이다. 이는 이들이 시가에 능하지만 원래의 신분이 역시 승려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불교가 발전하는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확실하며, 소위 불교의 교리를 표현한 偈頌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소위 偈頌이란 원래 불교의 깨달음이나 이치 등을 표현할 때 창작한 것이지만, 후에 문학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특히 시와 유사한 형식을 갖게 되었다. 결국, 詩僧들은 계승을 시가로 발전시켜 자신의 불교적 깨달음과 더불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비록 詩僧들이 승려라는 신분이지만 불교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가창작을 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창작의 내용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詩僧에게 있어서 시가 자체의 창작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반 시인들과의 자연스럽고 넓은 교제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가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불교 승려로서의 색채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당시의 일반 시인과 다를 바 없는 작가이므로 다양한 내용을 시가에 표현하고 있다. 아래에 이들의 시가창작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佛敎的 色彩와 개인감정의 표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佛敎的 色彩

詩僧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가지는 함의는 넓지만, 그 근간은 역시 승려라는 신분과 불교라는 종교일 것이다. 이들이 다양한 내용을 시가에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교 교리를 시가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전후와 관계없이 詩僧의 시가창작에는 늘 불교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또는 자신의 깨달음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新羅나 唐代이전에도 승려의 신분으로 시가를 창작한 詩僧들이 많지만, 불교적 교리나 깨달음이 표현된 시가는 역시 唐代와 高麗시대의 詩僧들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唐代는 魏晉南北朝시기의 불교가 더욱 발전한 시기이며, 高麗의 경우도 신라시대를 바탕으로 불교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詩僧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唐代가 禪宗계통의 詩僧이 대거 출현하면서 최고조의 발전을 이룩한 시기라고 한다면, 고려시대 역시 禪僧을 위주로 하여 詩僧다운 詩僧이 정식으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唐代와 高麗시대의 詩僧의 시가 중에서 불교적 이치와 불교적 깨달음을 표현하

고 있는 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唐代 초기의 王梵志와 寒山은 이전과 비교한다면 가장 詩僧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시기에 승려들이 시가를 창작했지만 사실상 偈頌에 훨씬 가까운 반면, 왕범지와 寒山의 시는 敍詩와 가까운 시와 더불어 唐代의 일반 시인들과 같이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詩僧의 양상은 이후의 詩僧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가 다양한 내용의 시가를 창작했다더라도 여기에서는 승려의 신분에서 중점을 두어 그의 불교적 색채가 보이는 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寒山의 시가 「曠火」를 보기로 하자.

曠是心中火, 눈을 부릅뜨는 것은 마음 속에 화가 되니,
能燒功德林. 이를 태워버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네.
欲行菩薩道, 부처의 도를 행하고 싶다면,
忍辱護真心. 치욕을 참으며 진심을 유지해야 한다네.

「曠」이란 불교용어로서 소위 '三毒'의 하나이다. 그 의미는 남을 해하려는 심리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功'과 '德' 역시 불교용어로 선행과 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구 '菩薩道'는 부처의 도리이며, 넷째 구 '真心'은 망념을 떨쳐버린 진실된 마음을 가리킨다. 이 시는 불교용어를 이용하여 부처의 도리를 행하고 하는 詩僧의 불교 수행의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다.

불교는 唐代에 이르러 점차 사회의 한 문화를 형성할 정도로 저변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 한 종파인 禪宗은 더욱 두드러졌다. 六祖 慧能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선종은 더욱 발전을 거듭하면서 中國화된 불교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선종의 발전과 같은 축으로 교묘하게도 禪宗과 관련된 詩僧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즉, 『全唐詩』에 수록된 詩僧의 시가가 약 2800여 수인데, 그중 2400여수가 바로 中唐과 晚唐시기에 활동한 詩僧의 작품이다.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禪宗계통의 詩僧은 皎然과 貫休 그리고 齊己가 있다. 여기에서는 唐代 말기에 활동했던 禪宗의 詩僧인 貫休의 시가 「道情偈三首」 중 其二를 보기로 하자.

非色非空非不空, 실체는 없으며, 빈 것도 없으며 비지 않은 것도 없으니,

空中眞色不玲瓏 텅 빈 가운데의 진실 또한 영롱한 것이 아니라네.
可憐盧大擔柴者, 가련한 慧能은 장작을 팔고 있었는데,
拾得驪珠橐籥中 풀무로 불을 지피는 중에 깨달음을 얻었다네.

이 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다. 즉, '色'과 '空' 자체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깨달음은 실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설령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연에서는 비천한 태생인 慧能의 깨달음을 빌어, 깨달음은 누구나 어떤 상태에서라도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시는 慧能이 말했던 “깨닫지 못하면 佛도 바로 중생이고, 일념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중생도 바로 佛이다.”¹⁸⁾라는 禪宗의 이치에 대한 貫休의 心得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에는 고려시대 詩僧의 작품 중에 보이는 불교적 이치나 깨달음에 대한 心得을 표현한 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詩僧 大覺國師 義天은 宋에 유학한 경험 이 있으며, 왕족으로써 정신적 통일과 사상적 융화를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여 고려 초기 불교종파의 융합을 위해 노력했던 승려이다.¹⁹⁾ 그의 『大覺國師文集』은 최초의 승려의 시문집으로 148수가 있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가는 107수이다.²⁰⁾ 역시 다양한 내용을 시가에 표현했지만, 그 중심은 주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의 시가 「偶作」을 보기로 하자.

圓經本足出離緣, 法華經은 본래 인연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未學區區未勉旃. 후진들은 구구하게 이에 힘쓰지 않네.
依傍求名深有誠, 남에게 기대어 명성을 얻는 것을 깊이 경계하였거늘,
可憐終日不知愆. 가엾구나 끝까지 그 허물을 알지 못하니.

義天이 개창한 天台宗은 바로 法華經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이다. 의천은 법화경이

18) 慧能著, 楊曾文校寫, 『敦煌新本六朝壇經』, 上海古籍出版社, 1995, 31쪽. “不悟, 卽佛是衆生, 一念若悟, 卽衆生是佛.”

19) 앞의 책, 『한국불교사상연구』, 86쪽.

20) 박재금지, 『韓國禪詩研究』, 국학자료원, 1998, 40쪽.

야말로 인연과 미망의 속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첫 연에서는 범화경을 공부하지 않는 후학들을 나무라고 있다. 둘째 연에서는 현실 속에서 정도를 걷지 않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무리들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상은 속세에서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불교적인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시는 불교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기초로써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시대 초기 義天 이후에 불교는 점차 禪宗위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普照國師 知訥이 禪사상의 길을 개척하였고, 이를 계승한 慧謙은 선종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던 고승이자 詩僧으로 문학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인물이다.²¹⁾ 慧謙이후에 저명한 선종계통의 詩僧에는 一然·冲止·景閑·普愚 등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내용의 시가를 창작했지만, 역시 승려의 신분이었기에 禪宗과 관련된 내용의 시가 중심이 되고 있다. 慧謙은 고려시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詩僧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집 『無衣子詩集』에는 259수의 시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다양한 내용의 시가가 있지만 역시 선종의 교리와 관련된 시가가 적지 않다. 그의 시가 『廻向日』의 두 번째를 보기로 하자.

有無坐斷露眞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떠나야 참된 모습이 드러나니,
一點孤明若太陽. 한 줄기 밝은 빛 태양과 다를 바 없네.
直下承當猶喫棒, 당장 안다고 해도 오히려 주장자를 맞으리니,
那堪冷坐暗商量. 어찌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고 있고자 하는가.

이 시는 핵심이 대중을 향하여 “모든 법은 원래부터 삶과 죽음·만남과 헤어짐·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모양을 떠나있는 것이니, 오직 하나만의 진리가 있을 때, 가득 차고 맑아지며, 또한 확연해지고 밝아지니 고금을 통하여 끊어지지도 멸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보는가?”²²⁾라고 말 한 후에 지은 시이다. 핵심이 말하는 한 가지 진리란 바로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세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떠나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단한 정진을 해야한다고 하여 수도하는 이

21) 앞의 책, 『韓國禪詩研究』, 71쪽.

22) 慧謙, 『眞覺國師語錄』 2張 卮 “知諸法從本已來 離生滅相 離去住相 離成壞相 唯一眞際 彌滿清淨 虛澈靈通 亘古亘今 無斷無滅 諸人還着眼也.”

들을 깨우쳐주고 있다.

다음에는 景閑의 시가 「又作十二頌呈似」의 네 번째 시를 보기로 하자.

本心本空寂, 본심이란 원래 비어있고 고요한 것이고,
本法本無生. 불법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네.
此作智慧觀, 이런 지혜로 보면,
是明見佛性. 그것이 바로 불성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네.

이 시는 마치 중국 禪宗의 六朝 慧能의 偈頌 “원래 허무하여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늘 어디 무슨 塵埃가 있겠는가?(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를 보는 듯 하다. 즉, 경한 역시 혜능이 느꼈던 見性成佛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위 ‘示法詩’는 선종의 이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시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偈란 禪師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詩僧들은 시가를 창작할 줄 알았기에 시가의 형태로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偈頌의 경우에는 시가의 형식이나 수사적 효과 등 문학작품의 가치보다는 내용의 표현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詩僧들은 시가를 偈頌의 창작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인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가를 단순히 계송을 위한 창작으로 이용한 일반 승려와는 달리 詩僧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즉, 詩僧의 시가에 드러나는 불교적 내용과 깨달음 등은 계송에서 점점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시가창작으로 변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문학사에서 漢詩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偈頌과 漢詩 일반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²³⁾라고 말하고 있다.

詩僧의 시가에서 불교적인 내용은 사실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들이 일반 시인들과 유사한 시가를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이 승려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중국의 唐代와 한국의 高麗시기의 詩僧의 시가창작을 비교해 본 결과, 이들의 시가에 담긴 불교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은 같은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조동일저,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2000, 194쪽.

2) 개인의 감정표현

詩僧의 시가 중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없다면, 詩僧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불교적 교리나 깨달음을 표현한 시가가 승려라는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한 시가들은 바로 詩僧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감정의 표현은 크게 자연과 관련된 내용과 개인의 신변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우선, 자연과 관련된 詩僧의 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와 자연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로 수도하는 곳이 자연 속이며, 속세를 벗어난 곳이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詩僧들은 자연 속에서 불교의 이치를 얻고자 했지만, 자연 그대로가 詩僧 개인들의 감정에 스며들여 일반 시인들과 같은 자연에 대한 느낌을 시가로 창작하기도 하였다. 즉, 詩僧들은 불교의 이치를 자연 속에 조화시켜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한 경계가 담긴 시가를 창작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불교적인 이치를 초월하여 개인적인 고요함과 유유자적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앞 절에서 직접적으로 불교적인 교리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연을 통하여 禪理를 표현하고 있는 시가가 있다. 이러한 시가는 직접적으로 불교적인 내용을 표현하기보다는 이를 응화시켜 심오한 경계로 만들고 있기에 철학적인 색채가 짙다. 唐代 말기의 詩僧 貫休의 시가 「夜居偶作」을 보기로 하자.

高淡清虛卽是家, 담박하고 맑고 고요한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니,
何須須占好煙霞. 어찌 꼭 아름다운 경치가 필요하겠는가?
無心於道道自得, 깨달음에 무심하니 오히려 깨달음이 저절로 다가오고,
有意向人人轉睎. 의식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 더욱 멀어지네.
風觸好花文錦落, 바람이 아름다운 꽃에 닿으니 분분히 흩날리고,
砌橫流水玉琴斜. 섬돌을 가로막혀 흘러가니 거문고소리 나는 같네.
但令如此還如此, 오로지 이와 같고 또 이와 같으니,
誰羨前程未可涯. 누가 속세의 가없는 공명을 부러워하겠는가?

이 시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인의 깨달음에 대한 느낌을 적고 있

다. 첫 연에서는 우선 고요한 곳이 바로 수도하기에 적합하며 굳이 아름다운 풍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연에서는 무심이야말로 禪의 깨달음을 얻는 바른 길이라고 말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禪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연은 자연의 아름답고 청정한 모습이 바로 禪境임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연은 詩僧의 心得으로 자연을 벗삼아 禪을 추구하는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王維의 山水詩와 아주 유사하며 왕유 시가에 보이는 理趣가 그대로 살아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詩僧이 표현하고자 하는 禪理는 자연 속에서 심오하게 드러나고 있다.

高麗시대의 詩僧 중에 특히 慧心은 일반 詩僧과 다른 면모가 있다. 우선, 知訥의 뒤를 이어 禪宗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며, 다음에는 불교에 출가 전에 일반 사대부로서 과거에 나가 급제했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시가 창작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며 시에 대한 조예 역시 깊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가창작에 있어서 禪宗의 이치를 시가에 담아 승화시키는 능력이 더욱 뛰어났을 것이다. 慧謙의 시가 「池上偶吟」을 보기로 하자.

微風引松籟, 산들바람이 솔바람을 일으키는데,
 肅肅清且哀. 쇠 하는 소나무 소리 맑으면서도 구슬프구나
 皎月落心波, 하얀 달 물 한 가운데에 떨어져
 澄澄淨無埃. 맑고 맑아 티끌도 없어라
 見聞殊爽快, 보고 들리는 것이 가없이 상쾌하여
 嘯詠獨徘徊. 시를 읊으며 홀로 배회하네
 興盡却靜坐, 흥이 잦아들어 고요히 앉아있으니
 心寒如死灰. 마음이 차분한 것이 마치 식은 재와 같네.

이 시는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며 쓴 시 같지만, 그러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여 은근하면서도 심오하게 禪宗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둘째 연에서의 물 가운데 떠 있는 한없이 맑은 달빛은 바로 詩僧의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깨달음이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자연의 맑은 모습과 마음의 깨끗함을 대비시키고 있으며, 또한 자연을 즐기면서도 無念無想의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은 詩僧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다음에는 불교적 이치를 표현하기보다는 순수하게 자연에 대한 느낌과 자연과 일치되는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시가를 보기로 하자. 이러한 시가는 일반 시인들의 山水詩나 隱逸詩와 아주 유사하며,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고요하며 淸淡한 경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唐代 말기의 詩僧 齊己의 시가 「夏日草堂作」을 보기로 하자.

沙泉帶草堂, 시냇물은 초당 옆을 흐르고 있는데,
紙帳卷空牀. 종이 휘장은 빈 침상 옆에 말려있네.
靜是真消息, 고요하니 진정으로 모든 것이 소멸된 듯한 것이고,
吟非俗肺腸. 시 읊조리니 세속의 소란함에서 벗어나네.
園林坐淸影, 동산 숲에는 선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梅杏嚼紅香. 매화와 살구나무 맛보니 붉은 빛과 더불어 향기도 나네.
誰住原西寺, 누가 原西寺에 거하기에,
鐘聲送夕陽. 석양 무렵에 종소리를 전해주는가.

이 시는 산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詩僧의 고요하고 유유자적하는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과 생활이 조화되어 전체적으로 靜謐한 境界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마지막 연의 종소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경계 속에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시가에 묘사된 시냇물 흐르는 곳, 한가로운 생활, 아름다운 정원 등등은 바로 이 시를 더욱 맑고 아름다운 시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후대의 평가에서도 “실제로 역시 淸麗하다.”²⁴⁾라고 이 시를 해석하고 있다.

高麗시대의 冲止는 慧心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詩僧 중에서 과거에 급제했던 경력이 있는 詩僧이다. 이러한 면모는 역시 시가창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혜심과 충지에게는 불교적 내용의 시가와 더불어 불교가 융화되거나 불교 외적인 내용의 시가가 많다. 즉, 자연과 더불어 담담하고 고요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시가 역시 적지 않다. 冲止의 「閑中偶書」 중의 첫 번째 시가 “절은 수많은 봉오리 속에 있으니, 깊고 그윽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24) (元)方回編, 『瀛奎律髓』, 上海古籍出版社, 1993, 522쪽. “實亦淸麗” (《四庫文學總集選刊》影印本)

창을 여니 바로 산 빛이 들어오고, 문을 닫아도 시냇물 소리 들리네.”(寺在千峰裏, 幽深未易名. 開窓便山色, 閉戶亦溪聲.)는 바로 그러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제목에서는 한가한 가운데 지었다고 하지만, 승려의 시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시인이 은거하는 가운데 산사를 보면서 지은 山水詩에 훨씬 가깝다. 바로 이러한 일반 시인다운 점이 있기에 詩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는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산수화를 연상하게 하며, 동시에 담담하면서 청신한 느낌을 저절로 생기게 한다.

다음에는 詩僧의 개인신변과 관련된 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신변과 관련된 내용에는 송별이나 증여 그리고 화답하는 것이 있겠고, 또한 고향이나 가족을 생각하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서의 감회를 적은 시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송별이란 주제는 중국 고전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일 것이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다반사이고, 그러한 감정은 쉽게 시로써 표현되었다. 실제로 당대의 수많은 시인들의 송별시를 창작했으며, 시승들의 송별시 역시 적지 않다. 예를 들면, 唐代 詩僧의 皎然의 송별시 「送靈澈」“나는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꿈꾸지만, 無心이 이별의 상심을 해소해주네. 마음이 천리에 있든 만리에 있든, 늘 눈앞의 달과 같을 것이네.(我欲長生夢, 無心解傷別. 千里萬里心, 只似眼前月.)가 있다. 이 시에 보이는 皎然과 靈澈은 동시대의 저명한 詩僧이자 詩友이다. 교연은 영철과 헤어지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헤어지기 못내 아쉬운 상심을 초월하여 詩僧답게 禪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즉, ‘무심’이 ‘이별의 상심’을 잊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마음은 눈앞의 달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무심’의 경지와 마음이 세상을 비치는 달과 같다는 의미는 바로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禪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송별시를 통하여 자신의 禪理에 대한 깨달음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대하여 “깊은 佛心和 禪意를 표현하였는데 정말 쉽지 않은 성취이다.”²⁵⁾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詩僧 역시 많은 송별시를 남기고 있다. 특히 義天의 송별시 「送道生僧統歸俗離寺」“말 옆에서 하루종일 이별의 정에 아쉬워하며, 떠나는 곳에서 소매잡고 한스러워하네. 옛날 어떤 놀이가 마음에 가장 남아 있을 것인가, 수정산 아래 흰 구름은 깊었었다네.(停驂竟日情無倦, 摻袂臨歧恨莫任. 何事舊遊偏掛意,

25) 陳耳東編著, 『歷代高僧詩選』, 天津人民出版社, 1996, 68쪽. “表現了深遠的佛心禪意, 實爲難得”

水精山下白雲深)”는 교연의 시가와 유사한 점이 있다. 즉 상심은 있지만 마지막 구의 ‘흰구름’은 교연이 말한 ‘달’과 동일한 心象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연의 달이 헤어져서 어는 곳을 가든 늘 비출 수 있는 것이라면, 의천의 흰 구름 역시 어는 곳에서나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의천의 송별시가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굳이 흰 구름을 시어로 선택한 이유는 위와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면상, 교연의 시가가 너무 심오하게 송별의 정을 표현했다면, 의천의 송별은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더욱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원감국사 冲止의 시가 『아우에게』는 가족의 일을 시가에 담고 있다.

與君相別十三年, 그대와 십 삼 년 동안 헤어져
洛北江南兩杳然. 그대 있는 洛北과 이곳 江南에서 서로 아득했었네
那料鷄峰風雨夜, 어찌 생각이나 했는가, 鷄尼山에서 비바람 치는 밤,
白頭今復對床眠. 늙어버린 오늘 자리 맞대고 함께 잘 줄을....

이 시는 충지 스스로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아우와 십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회포를 표현하고 있다. 즉, 오늘 이렇게 오래 동안 헤어진 아우와 함께 잠자리를 할 줄은 몰랐다고 언급하면서 형제의 만남에 대한 감개를 영탄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승려라는 신분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주며, 일반 시인과 다를 바 없는 면모라고 할 수 있겠다. 충지의 시가 가족과 관련된 신변잡사라면, 唐代的 詩僧 齊己의 登祝融峰 “원숭이와 새도 모두 이르지 못하지만 내 몸은 붕 뜬 듯이 여기에 왔네. 사방의 하늘은 온통 푸르고, 정상은 가을처럼 맑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겠고, 우리와 오랑캐가 미미하게 보이네. 靑玉壇에 홀로 서니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네.(猿鳥共不到, 我來身欲浮. 四邊空碧落, 絕頂正清秋. 宇宙如何極, 華夷見細流. 壇西獨立人, 白日轉神州.)”는 산행할 때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전반부는 정상에 오른 감회를 표현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정상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며 미미한 자신을 돌아보며 광활한 하늘과 땅이 모두가 한 가지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양국 詩僧의 시가에는 불교적인 색채가 주류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신변과 관련된 수많은 시가는 이들이 ‘僧’적인 면모와 더불어 역시 ‘詩僧’ 중의 ‘詩’의 측면도 강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에 대한 인식

詩僧과 사회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잘 맞지 않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詩僧의 시가를 보면 현실에 대한 관심과 국가에 대한 관심이 표현된 시가들이 적지 않다. 唐代 초기의 詩僧의 경우 당 제국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현실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약하다. 그러나 唐代 말기로 가면서 국가의 내외의 혼란이 가중되었기에, 詩僧들의 시가에도 일반 시인들처럼 국가를 염려하고 현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貫休와 齊己가 대표적이다. 관휴의 시가 古塞下曲四首 중 其三를 보기로 하자.

日向平沙出, 해는 사막에서 나와
還向平沙沒. 또 사막으로 지네.
飛蓮落軍營, 바람에 날리는 쑥은 군영에 떨어지고,
驚雕去天末. 놀란 독수리는 하늘 저편으로 가네.
帝鄉青樓倚霄漢, 황제가 있는 靑樓는 하늘에 닿을 듯 하고,
歌吹掀天對花月. 노래소리는 하늘로 향하며 꽃과 달을 마주하고 있네.
豈知塞上望鄉人, 어찌 변방에서 고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日日雙眸滴清血. 매일 두 눈에 맑은 피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라!

辛文房은 『唐才子傳』에서 “貫休의 한 가닥 곧은 기질은 세상에 짝을 찾을 수 없고..... 타고난 민첩한 재능으로 맹렬한 기운을 토로했으며, 특히 樂府가 뛰어나 當時에 종사라고 할 만하다.”²⁶⁾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곧은 기질과 맹렬한 기운은 바로 현실에 인식이 있어서의 貫休의 작풍을 말하는 것이다. 唐代의 저명한 현실주의 시인들 杜甫나 白居易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이 시는 황실에서 향락에 젖어 있는 靑

26) 傅璇琮主編, 『唐才子傳校箋』, 中華書局, 1990, 442쪽. “休一條直氣, 海內無雙.....天賦敏速之才, 筆吐猛銳之氣, 樂府高律, 當時所宗.”

樓와 변방에서 고생하는 병사의 염원을 대비시켜 당시의 상황을 잘 폭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隋唐五代文學史』에서도 貫休의 이런 樂府詩에 대하여 “세상의 기풍에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질책했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용한 시가의 내용을 “統治者의 향락과 변방 병사들의 사활에 관심 두지 않는 것을 비평했다.”²⁷⁾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貫休는 비록 시승이지만 특이하게도 현실주의 시가전통을 살린 樂府詩의 창작이 많으며, 실제로 『樂府詩集』에 54首가 실려 있다. 貫休의 시가 중에 현실과 관련된 것에는 「行路難」·「古塞上曲七首」·「古塞上曲七首」·「古出塞曲三首」·「古塞曲三首」·「邊上作」·「戰城南」·「酷吏詞」 등이 있다. 貫休와 더불어 唐代 말기의 대표적인 詩僧인 齊己도 역시 이러한 경향의 시가 많다. 예를 들면, 「西山叟」·「古寒行」·「猛虎行」·「亂後經西山寺」·「看金陵圖」·「謝炭」 등이 있다.

고려의 경우도 唐代와 비교적 유사하다. 고려 초기의 시대적 배경은 詩僧들에게 현실과 관련되어 현실반영의 동기부여를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중기이후 禪家 승려들의 구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국가사회에 대한 참여와 그 의식을 보더라도 그것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²⁸⁾라는 지적을 보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발로는 사실상 고려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려중기와 후기에는 바로 원의 침략과 무신정권하의 정치·사회적 혼란이라는 內憂外患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사회에 직면하여 詩僧들 역시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거나 백성들의 고통을 드러내거나 동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혜심의 시가 「憫世」는 貫休의 시가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服食驕奢德不修, 입고 먹는 것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덕도 딱지 않으며,
農蠶母見幽囚. 농부와 옷감 짜는 이를 죄인 취급하네.
從茲舉世受寒餓, 이로부터 온 세상이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게 되니,
爲報時人信也不.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겠는가!

27) 毛水清著, 『隋唐五代文學史』, 廣西人民出版社, 2003, 773쪽. “不僅針砭世風, 斥責惡行”·“批評統治者享樂, 不管邊庭戍卒死活”

28) 앞의 책, 『高麗時代 佛教詩의 研究』, 231쪽.

慧謙이 이 시를 창작하던 시기는 바로 최씨 무인정권시기이다. 혜심은 사치를 일삼고 부덕한 통치집단에 대한 부분과 추위와 기아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대비하면서 무인정권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시는 혜謙이 비록 승려의 신분이라고 할 지라도 역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시인의 면모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가에는 「登黃龍塔 · 「贈金郎中」 · 「次黃中使韻」 등이 있다.

冲止의 장편시 「嶺南艱苦狀」은 영남지방의 백성이 겪은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중 일부분을 보기로 하자.

邑邑半逃戶, 고을마다 집의 반은 도망갔고,
村村皆廢田. 촌락마다 모두 밭을 갈지 않네.
誰家非索爾, 누구 집인들 쓸쓸하지 않으랴,
何處不騷然. 어느 곳인들 소란하지 않으랴.
官稅竟難免, 관청의 세금은 면하기 어렵고,
軍租安家躑. 군의 부역은 어떻게 면할 수 있으랴!
瘡痍唯日深, 부스럼은 나날이 심해져가고,
疲瘁曷由痊. 병든 몸이 어찌 나으랴!

원나라가 침략한 후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강제로 부역을 일삼았는데, 이 시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생긴 영남지역의 백성들의 고통을 묘사한 것이다. 충지는 나라를 빼앗긴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소위 대신하는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에 대한 동정을 표현했는데, 그 슬픔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다. 이 시에는 국토의 피해를 우선 묘사하고, 다시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가중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작품을 통해 우리는 충지 스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게 된다.”²⁹⁾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시가에는 「東征頌」 · 「憫農黑羊四月旦日雨中作」 등이 있다.

29) 임종욱지음, 『우리고승들의 禪詩세계』, 보고사, 2006, 63쪽.

詩僧은 사회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지만 시인의 측면이 존재하기에 역시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唐代의 전반적인 혼란과 고려의 원의 침략과 무신정권에서의 혼란이라는 유사한 시대적인 상황은 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경향의 시가를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IV. 結論

唐代의 詩僧과 高麗의 詩僧들은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에서 다르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되고 발전해 가는 과정과 맞물린 詩僧의 발전과정을 보면, 唐代와 高麗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즉, 양국에서 불교종파가 모두 禪宗이라는 종파로 귀결되어 가면서 詩僧 역시 선종계열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를 바탕으로 禪宗이 사회에 침투되면서 詩僧들이 일반 시인들과 다양하게 접촉했다는 측면 그리고 詩僧들 자체가 이미 偈頌의 창작을 통하여 시가를 창작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는 측면이 그렇다.

詩僧에 대한 唐과 高麗의 배경양상에 있어서 禪宗계통의 詩僧이 중심이 되었다는 공통점이외에, 唐의 詩僧이 南方에 치우쳤다는 부분과 고려의 詩僧이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했지만 수도나 지방의 절이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신분에 있어서도 唐의 詩僧이 평범한 신분이었다면 高麗의 詩僧은 국가의 인정을 받는 높은 신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시가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승려의 신분이었기에 불교와 관련된 시가가 많다. 이 부분은 詩僧이라는 호칭에서 '僧'의 부분이 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가 많다. 이는 역시 '詩'의 부분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詩僧'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唐의 詩僧인 경우 신분상 평범한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기에 이러한 시가가 고려의 詩僧에 비하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의 詩僧 역시 개인적인 내용을 가진 시

가를 의외로 적지 않게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에 대한 인식 역시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비록 詩僧이지만 혼란한 국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儒家적인 사상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詩僧의 경우 國師로써 늘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바라는 바는 堯風과 禪風이 영원히 나부끼고 堯日과 佛日이 항상 밝으며 바다는 편안하고 강은 맑으며, 세상은 평화롭고 매년 풍년들어 만물이 각각 자신의 자리를 얻고, 집집마다 오로지 無爲를 즐기게 하고자 함이니, 변변치 못한 내 생각을 여기에 절절하게 말했을 뿐이다.”³⁰⁾라는 慧謙의 글은 그러한 인식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唐의 詩僧과 高麗의 詩僧에게는 禪宗이라는 공통점 및 신분상이나 활동지역에서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시에 능한 승려로써 불교적 색채를 가진 시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인들과 다를 바 없는 다양한 내용의 시가를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詩僧들의 시가창작이 양국의 시가역사에서 이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시가창작이 시가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0) 慧謙, 『禪門拈頌序文』 『禪門拈頌』, 佛書普及社, 1979, 1쪽. “所冀 堯風與禪風永扇 堯日共佛日恒明 海晏河清 時和歲稔 物物各得其所 家家純樂無爲 區區之心 切切於此耳.”

참고문헌

- 印權煥著, 『高麗時代 佛教詩의 研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3.
- 覃召文著, 『禪月詩魂·中國詩僧縱橫談』, 三聯書店, 1995.
- 孫昌武著, 『禪思與詩情』, 中華書局, 1997.
- 韓基斗著,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
- 印順著, 『中國禪宗史』, 江西人民出版社, 1993.
- 呂慧鵬等編, 『中國歷代著名文學家評傳(續編一)』, 山東教育出版社, 1997.
- 喬象鐘、陳鐵民主編, 『唐代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5.
- 박재금지, 『韓國禪詩研究』, 국학자료원, 1998.
- 조동일지,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2000.
- 陳耳東編著, 『歷代高僧詩選』, 天津人民出版社, 1996.
- 呂子都選注, 『中國歷代僧詩精華』, 東方出版社, 1996.
- 毛水清著, 『隋唐五代文學史』, 廣西人民出版社, 2003.
- 임종욱지음, 『우리고승들의 禪詩세계』, 보고사, 2006.
- 慧謙, 『禪門拈頌』, 佛書普及社, 1979.
- 배규범지, 『불가시문학론』, 집문당, 2003.
- 金達鎮編譯, 『韓國禪詩』, 열화당, 198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Poetry-Monk' Poetry of ancient Korea and China

Won-bin Yim

Between the poetry-monk of the Tang dynasty and the Koryo dynasty,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in time and space, but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each other. Dealing with Zen Buddhism, this is a common factor between them. There are differences also which is region of activity and the social position. In particular, the poetry-monk of the Tang dynasty are men of ordinary status, but the ones of the Koryo dynasty are persons of high standing.

If giving an overview of contents in their poetry, we can detect several similarities. The First, they have a strong Buddhist coloring. The second, they express their personal feelings as another ordinary poet. The third, even though they are Buddhist monks, they have Confucianism in their way of thinking. In actuality, they composed lots of poems dealing with realities of life, loyalty and love of the people

Key words : poetry, poetry-monk, Zen Buddhism, comparative literature, Korea and China